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인 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악곡 및 학습활동 비교분석

202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은 송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악곡 및 학습활동 비교분석

임 인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은 송


인 준 서

김은송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홍 경 식 

심 사 위 원 임 인 경 

심 사 위 원 김 명 숙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제2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의 비중과 학습활동 내용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45권의 중학교 음악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악곡의 비중을 쪽수로 계수하였고, 악곡의 제시 형태에 따라 학습활동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다문화 악곡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다문화 악곡의 전체 비중은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2차 교육과정이 11.5%, 3차 교육과정이 11.8%, 4차 교육과정이 13.9%, 5차 교육과정이 12.6%, 6차 교육과정이 11.1%, 7차 교육과정이 11.6%, 2007개정 교육과정이 8.6%, 2009 개정 교육과정이 7.0%, 2015 개정 교육과정이 6.3%으로 7차 교육과정 이후 다문화 악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르별로 비중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악의 양적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져 교과서에서 국악의 비중이 늘어나고, 대중음악의 비중 증가로 제2차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내에서 점차 다양한 영역이 다루어지면서 다문화 악곡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의 대륙 및 국가별 분포는 유럽이 총 210회로 60.3%의 비중을 나타내며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다음으로 아시아가 총 68회로 19.5%, 아메리카가 총 48회로 13.9%를 보이며, 오세아니아가 총 13회 3.7%, 아프리

카가 총 9회로 2.6%로 가장 적게 제시되었다. 각 대륙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국가로는 유럽에서는 독일이 57회, 아시아에서 중국이 19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19회,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가 6회, 아프리카에서는 가나가 3회로 대륙별 가장 많이 제시된 국가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특정한 지역에 제재곡이 편중된 경향이 있어 차기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제재곡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대륙별로 최다 수록곡 두 곡을 선정하여 총 10곡을 중심으로 학습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 따라 동일한 제재곡이지만 연주 형태나 빠르기 및 조성의 변화, 피아노 반주의 유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되어 수록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 학습활동이 전혀 제시되지 않거나 일부 활동 위주로 제시된 경우도 있어 개별적인 활동과 함께 다양한 학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재곡의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각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 설명과 시각자료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사 제시 방법에 있어서 원어발음의 한글 가사와 원어 가사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제시된 악곡을 이해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교과서에서 원어 가사와 한글로 적은 원어 발음의 가사가 제시되어 학생들의 다문화 악곡 학습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차기의 지속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2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이해	4
2. 다문화 음악교육	5
3.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다문화주의	8
4. 선행연구 고찰	14
III. 연구 방법	18
1. 연구 대상	18
2. 연구 절차	20
3. 연구 방법	21
IV. 연구 결과	26
1.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다문화 악곡 비중 분석	26
2.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장르별 비중 분석	28
3.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의 대륙 및	

국가별 분포	29
4. 대륙 및 국가별 다문화 악곡 수록 현황	32
5.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의 학습활동 비교·분석	34
 V. 결론 및 제언	 61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II-1>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변천	9
<표 II-2>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에서 나타난 다문화주의 변천	13
<표 III-1> 연구 대상 교과서 목록	18
<표 III-2> 연구 절차	20
<표 III-3> 교과서 내의 다문화 영역 분석 기준	22
<표 IV-1> 교육과정별 다문화 악곡의 비중	26
<표 IV-2>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장르별 비중	29
<표 IV-3> 교육과정별 다문화 악곡의 대륙 및 국가별 분포도	30
<표 IV-4> 대륙 및 국가별 다문화 악곡 분류	32
<표 IV-5>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대륙별로 최다 수록된 다문화 악곡	35
<표 IV-6> 5차,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제시된 ‘모리화’ 학습 내용	38
<표 IV-7>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모리화’ 학습활동	39
<표 IV-8>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양거춤 추세’ 학습 내용	41
<표 IV-9>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고향생각’ 학습활동	44
<표 IV-10>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푸른 목장’ 학습활동	47
<표 IV-11>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알로하오에’ 학습활동	50
<표 IV-12>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라 쿠카라차’ 학습활동	53
<표 IV-13>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월칭 마틸다’ 학습활동	60

그 립 목 차

<그림Ⅲ-1> ‘대륙명’ 제시 예	22
<그림Ⅲ-2> ‘국가명’ 제시 예	22
<그림Ⅲ-3> ‘다른 나라’ 용어	22
<그림Ⅲ-4> ‘세계의 음악’ 용어 예시	22
<그림Ⅳ-1> 3차 교육과정 문교부 2학년	36
<그림Ⅳ-2> 2015 개정 교육과정 박영사①	36
<그림Ⅳ-3> 6차 교육과정 도서출판장원 3학년	40
<그림Ⅳ-4> 7차 교육과정 동진음악출판사 2학년	40
<그림Ⅳ-5> 2차 교육과정 일진출판사 3학년	42
<그림Ⅳ-6> 2009 개정 교육과정 미래엔 2학년	42
<그림Ⅳ-7> 3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1학년	45
<그림Ⅳ-8> 2007 개정 교육과정 금성 2학년	45
<그림Ⅳ-9> 4차 교육과정 삼화서적 주식회사 2학년	48
<그림Ⅳ-10> 2015 개정 교육과정 박영사①	48
<그림Ⅳ-11> 2차 교육과정 일한도서출판사 2학년	51
<그림Ⅳ-12> 2007 개정 교육과정 미래엔 2학년	51
<그림Ⅳ-13> 2009 개정 교육과정 천재교육	53
<그림Ⅳ-14> 2015 개정 교육과정 박영사②	53
<그림Ⅳ-15> 2009 개정 교육과정 천재교육	55
<그림Ⅳ-16> 2015 개정 교육과정 박영사②	55
<그림Ⅳ-17> 7차 교육과정 동진음악출판사 3학년	57
<그림Ⅳ-18> 2015 개정 교육과정 박영사②	57
<그림Ⅳ-19> 동진음악출판사 2학년	59
<그림Ⅳ-20>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생활②	5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현대 사회는 인구와 자본, 상품, 초국가적인 이동 및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정보화 세계화로 국경을 초월하여 외국인의 유입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2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3%에 이르고 있다.¹⁾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체류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시선까지 생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부정적이다.²⁾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버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인종에 대해 포용하는 마음과 올바른 다문화적 사고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특히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음악교육에서도 이 같은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최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중 하나는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을

1)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2020년 11월 30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0756

2) 김경식 외 7명(2017). **다문화사회의 이해**. 도서출판 신정. pp.19-22.

강조한다.³⁾ 이는 곧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음악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 음악교육은 다문화 사회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현재 우리 사회의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다문화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악곡 비중과 학습활동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별 다문화 음악교육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다문화 음악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둘째,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의 대륙별 비중과 국가별 제시 횟수는 어떠한가?

셋째,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대륙별로 최다 수록된 다문화 악곡 두 곡을 중심으로 주요 학습활동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20-41호에 따른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서울:교육과학기술부, 2015), p.4.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해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까지 모든 중학교 음악교과서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쓰인 모든 교과서를 구하기 어려워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 중 무작위로 선택된 2권, 총 45권의 음악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까지 임의적으로 2권씩 선정된 중학교 음악교과서를 비교·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 분석 결과가 2차부터 2015 교육과정까지의 중학교 음악교과서 전체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이해

다문화 교육은 건국 초부터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어 유럽 국가들로 퍼져나가 백인이 아닌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비롯되었다.⁴⁾ 그러나 초기 다문화 교육은 주로 인종과 민족 문화의 갈등에 초점이 있었지만, 점차 보다 광범위한 시민 운동 및 인권운동의 문제로 확장되어 사회가 더욱 다원화되면서 계층, 성, 종교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기준에 따른 집단적 차별과 편견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표면화되어 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⁵⁾

초기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여기며 이를 지원하고 확장하려는 교육을 말한다.⁶⁾ ‘다문화적 교육’이라는 용어는 1971년 캐나다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이주민들과 관련된 자국 내에서 민족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폭넓게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추진하였던 교육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⁷⁾

다문화 교육의 대표적인 학자 뱅크스(Banks)는 다문화교육을 “각각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등한 성취 경험을 갖도록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및 교육에서의 차별을 제거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 또는 학교 개혁운동”으로 보았고,⁸⁾ 캠벨(Campbell)은 문화와 인종이 다양한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

4) 장인실(2006). 미국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24(4), p.29.

5) 광덕주 외 6인(2016). *미래교육, 교사가 디자인하다*. 교육과학사. p.289.

6) 장인실(2013).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학지사 p.76.

7) 민경훈(2009). “다문화 교육으로서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예술교육연구*, 7(1), p.99.

8) 김경식 외 8인(2017).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도서출판 신정. p.64.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인간 진보의 가능성, 그리고 모든 인간의 평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⁹⁾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인 목표가 다문화 교육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주어 모든 학생들의 성취와 다른 문화에 대해 긍정적 수용을 통해 성숙한 문화 시민이 되는데 이바지 하는데 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을 기초로 서로 다른 집단들의 문화가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지식, 태도 가치교육으로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 집단 사람들과 상호 이해와 평등 관계 속에서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적 기회와 긍정적인 문화 교육적인 태도와 인식, 행동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평등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2. 다문화 음악교육

가. 다문화 음악교육의 의미

음악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다문화주의 교육’, ‘상호문화 교육’, ‘국제이해교육’, ‘월드 뮤직’, ‘세계음악’ 등의 용어들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권덕원¹¹⁾은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은 음악이 포괄하는 사회와 다양한 사회들 속해 있는 모든 민족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박혜정¹²⁾은 세상의

9) 조원탁 외 6인(2016).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 양서원. p.307.

10) 위의 책. p.64.

11) 권덕원(2000).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 교육”, **세계음악학회**, -(2), p.51.

12) 박혜정(1992). “다문화 음악의 이해 및 그 적용:음악교육의 사례”, 10(-), **한국국악교육학회**. pp.104-105.

‘모든’ 음악 문화가 교과 내용의 범위가 되고, 여기서 ‘모든’이란 뜻은 시대, 양식,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함희주¹³⁾는 다문화의 개념적 성격을, 미국에서 파생한 한 사회에서 소수민족의 문화 정체성 유지 및 회복, 한 사회문화에 유입된 이문화적 요인에 의한 전통 문화 바로 세우기,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나라 음악 이해하기의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민경훈¹⁴⁾은 교육 영역에서의 다문화 개념은 상호 간 공존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문화들 간의 접촉 혹은 공존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킨 ‘상호문화성’이란, 다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상호 간의 문화를 동시에 인정하고 교류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다문화적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과 동등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김미숙·이미연¹⁵⁾은 다문화 음악교육은 다양한 나라의 음악을 배우며 그 나라의 음악적 특징과 함께 문화와 역사, 사회적 특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세계시민의 역량을 키워 소통 능력과 정체성 형성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음악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음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민족의 음악 특수성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내릴 수 있다.¹⁶⁾

나. 다문화 음악교육의 필요성

다문화 교육과 연계된 다문화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박혜정¹⁷⁾은 음악이란 ‘인간’의 사고나 느낌을 통해 그린 결과라고 규정하고 이는 음악의 보편성과 연결되므로 교과내용 대상의 교과에서는 특정 음악 양식이 아닌 다원화된

13) 함희주(2003). “초등교육에서 다문화적 음악교육 적용가능성 탐색”, **음악교육연구**, 25(-). p.106.

14) 민경훈(2009). “다문화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p.340.

15) 김미숙, 이미연(2017). “다문화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교과서 아시아 음악 분석 연구”. **음악교육공학**, 32. p.133.

16) 주대창외 29인(2018). **음악연구의 동향과 과제**. 학지사. p.126.

17) 앞의 책. 10(-). pp.106-107.

음악 양식을 제시하여 이 다원성 속에 음악의 보편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음악의 보편성 이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방금주·조효임¹⁸⁾은 ‘미국 학교음악교육의 포괄적 음악경험이 주는 음악적 차원의 창의성, 다양성에 대한 기초를 공급하는 것과 문화적 차원으로써 음악을 통해 여러 문화를 접하고 이해함으로써 인류애와 포용, 관용의 심성을 기르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점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다문화 음악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였다.

권덕원¹⁹⁾은 다문화 음악교육의 가치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학자들의 주장을 여섯 항목으로 정리하면서 다문화 음악교육이 학생들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문화 음악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의 음악,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그들은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다문화 음악교육의 가치에 있어서는 ‘타문화에 대한 관용과 공존’이라는 전인적인 덕목을 익히게 함으로써 문화정체성 확립과 문화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문화 음악교육은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절실히 요구되는 문화 및 예술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18) 방금주,조효임(2005). “미국의 학교음악교육에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 13(2), **열린교육연구**. p.30.

19) 권덕원(2000).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 교육”, **세계음악학회**, 2(-), p.159.

3.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다문화주의

가.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변천²⁰⁾

우리나라는 미군정기의 교수요목 시기 이후 1955년 제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이 전면개정 및 수시개정을 통해 그 시대의 요구와 사회 변화를 폭넓게 수용되고 발전되어 오면서 약 50년 동안 총 10번 수정·보완되어왔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다문화’라는 용어의 직접적인 사용은 없지만, ‘다양한 문화권’, ‘여러 나라’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제인으로서의 교양을 높이며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기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2차 교육과정에서는 1차와 비슷하게 ‘국제인으로서의 교양을 높이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름’ 그리고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유명한 음악을 감상하는 태도를 기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음악과 다른 나라의 음악을 폭 넓게 이해하고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민족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차 교육과정은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능동적인 감상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차 교육과정은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작품의 문화적 배경과 관계를 이해하고 능동적인 감상 태도를 기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6차 교육과정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다양한 악곡 및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의 기본 능력과 창의적

20)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4). **음악교육의 기초**. pp.141-175.

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을 생활화 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음악의 기본 능력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음악 교과에 있어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서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음악'은 음악적 정서 함양과 표현력 계발을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여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을 통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상의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음악교육에서 어떻게 다문화주의를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목표 가운데 나타난 음악교육에서의 다문화주의 반영을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 관련 항목의 변천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변천

교육과정	구성체제	교과목표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에 관련된 항목
1차 (1955)	1. 음악과의 일반목표 2. 각급 학교 음악과의 목표 3. 학년의 지도목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와 원만한 인격을 갖추므로써 가정인, 사회인, 국제인으로서 교양을 높이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름에 있다.

2차 (1963)	1. 목표 2. 학년목표 2. 음악과의 지도내용 3. 지도상의 유의점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와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국민으로서 교양을 높이고 애국 애족하는 정신을 기르고 우리나라의 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기른다.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유명한 음악을 많이 들려주어 음악을 즐기는 마음과 감상능력 및 태도를 기름으로써 일상생활을 새롭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한다.
3차 (1973)	1. 목표 2. 내용 3. 지도상의 유의점	·우리나라의 음악과 다른 나라의 음악을 이해하고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민족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4차 (1981)	1. 교과목표 2. 학년목표 및 내용 지도 3.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능동적인 감상 태도를 기른다.
5차 (1987)	1. 교과목표 2. 학년 목표 및 내용 3.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작품의 문화적 배경과 관계를 이해하고 음악을 애호하며 즐기는 심미적인 태도와 능동적인 감상 태도를 기른다.
6차 (1992)	1. 성격 2. 목표 3. 내용 4. 방법 5. 평가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게 한다.
7차 (1998)	1. 성격 2. 목표 3. 내용 4. 평가	·다양한 악곡 및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
2007 개정 (2007)	1. 성격 2. 목표 3. 내용 4. 방법 5. 평가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한다. ·음악의 기본 능력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을 생활화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2009 개정 (2011)	1. 목표 2. 내용의 영역과 기준 3. 방법 4. 평가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015 개정 (2015)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4.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방향	‘음악’은 음악적 정서 함양 및 표현력 계발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을 신장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 육성에 이바지한다.
----------------------	---	--

나.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변천

교육과정에서 ‘내용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해, 음악의 생활화 영역으로 구성되며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항목은 주로 가창과 감상에 포함되어 있다.

1차 교육과정 감상 영역에서 ‘각국의 민요와 민족 음악, 민족 악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한다.’의 내용과 같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서술을 찾아볼 수 있다.²¹⁾ 2차 교육과정은 가창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노래 부르기’가 제시되었으며, 감상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유명한 음악의 감상 및 이해’가 제시되어 있다.²²⁾ 3차 교육과정은 가창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노래(민요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노래를 50%이상) 부르기’가 제시되었으며, ‘민속적인 가락과 건설적인 가사의 노래 부르기’를 제시하고 있다.²³⁾ 4차 교육과정은 내용영역에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5차 교육과정은 감상 영역에서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음악과 다른 나라의 음악을 체감, 이해하기’가 제시되었다.²⁴⁾ 6차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음악과 내용으로는 감상 영역에서 ‘악곡의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며 감상하기’가 있다.²⁵⁾ 7차 교육과정은

21) 문교부령 제45호. 제1차 교육과정. p.102.

22) 문교부령 제120호. 제2차 교육과정. pp.87-90.

23) 문교부령 제325호. 제3차 교육과정. p.82.

24) 문교부 고시 제87-7호. 제5차 교육과정. p.60.

25)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제6차 교육과정. p.76.

가창 활동에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부른다.’, 기악 활동에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연주한다.’와 감상 활동에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며 듣는다.’가 제시되었다.²⁶⁾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음악과 내용으로는 가창 영역에서 ‘다른 나라 동요 부르기’, ‘다른 나라 노래 부르기’가 제시되었으며, 감상 영역에서 ‘여러 지역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여러 문화권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가 제시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음악과 내용으로는 가창 영역에서 ‘여러 나라의 동요나 민요를 듣고 따라 부르기’, ‘여러 나라의 동요나 민요의 악보를 보고 부르기’가 제시되었으며, 감상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제시되어 있다.²⁷⁾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음악과 내용으로는 감상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발표하기’,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하기’가 제시되어 있다.²⁸⁾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서 나타난 다문화주의 반영을 살펴보면 4차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부분은 없으며, 4차 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에서 주로 가창과 감상 영역에 다문화 음악교육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서 나타난 다문화주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2>와 같다.

26)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제7차 교육과정. pp.37-38.

27) 권덕원 외 3(2016). 앞의 책, pp.152-153.

28) 민경훈 외 11(2017). 음악교육학 총론, pp.428-432.

<표 II-2>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에서 나타난 다문화주의 변천

교육과정	교과내용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에 관련된 항목	
	내용영역	내용
1차 (1955)	감상	·각국의 민요와 민족 음악, 민족 악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한다.
2차 (1963)	가창	·우리나라 여러 나라의 노래 부르기 ·세계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가곡과 민요 부르기
	감상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음악 감상 및 이해
3차 (1973)	가창	·우리나라 여러 나라의 노래 부르기(민요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노래를 50%이상) ·민속적인 가락과 건설적인 가락의 노래 부르기
	기악	·우리나라 여러 나라의 리듬 악기를 익숙하게 연주한다.
4차 (1981)	감상	없음
5차 (1987)	감상	·우리나라 음악과 다른 나라의 음악을 체감, 이해하기
6차 (1992)	감상	·악곡의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7차 (1998)	가창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부른다.
	기악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연주한다.
	감상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이해하며 듣는다.
2007 개정 (2007)	가창	·다른 나라 동요 부르기 ·다른 나라 노래 부르기
	감상	·여러 지역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여러 문화권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2009 개정 (2011)	가창	·여러 나라의 동요나 민요를 듣고 따라 부른다. ·여러 나라의 동요나 민요의 악보를 보고 부른다.
	감상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015 개정 (2015)	감상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4.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다문화 음악교육 분석에 관련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고자 한다. 학술연구정보 서비스에 근거하여 2005년 이후 석사학위 논문 중에서 키워드 ‘교육과정과 다문화’, ‘다문화 음악교육’ 등으로 검색하여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유진(2005)²⁹⁾은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다문화주의 수용 실태 비교연구: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에서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음악과 교육과정과 각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2종을 임의로 선정하여 음악 교과서에 다문화 곡의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음악과 교육과정에 다문화주의가 얼마나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어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서 다문화주의를 가장 잘 수용하고 있고 악곡의 문화적 특징을 학습하는 내용이 많았음을 밝혔다. 이어서 다문화적 악곡의 다문화적 내용의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다문화주의가 잘 수용되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다문화적 지도내용의 수업 유형은 모든 교육 과정에서 비슷한 것을 밝혔다.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의 최종 목표인 다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습득하는 정의적 영역의 수업내용에 있어서는 4차와 7차 일부만 제시되어 있으며, 정의적 영역 중에서도 다문화주의를 “가치화하기”의 수업내용은, 7차 교육 과정에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밝히면서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지역의 민속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을 제시하고 다문화적 지도내용에 있어서 다문화적인 가치를 ‘가치화’하는 내용이 역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29) 최유진(2005).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다문화주의 수용실태 비교연구: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진희(2009)³⁰⁾는 “중등 음악 교육의 다문화적 요소 변천 과정 연구”에서 제1차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각 교육과정과 이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과서 총 56종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이룰수록 다문화적 음악교육 요소의 반영 비율과 내용의 깊이가 확대되고 구체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교과서 제재곡에 있어서는 제시된 여러 나라의 민요는 유럽과 미국의 민요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밝혔다.

김은경(2014)³¹⁾은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악곡 분석: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비교”에서 제7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 음악 교과서의 전체 악곡에서 다문화 악곡이 차지하는 비중과 분포를 분석하여 수용 현황을 살펴보고, 다문화 악곡 단원에서 다문화 악곡 학습내용의 특성을 민족음악, 종교음악, 대중음악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악곡의 비중이 15.1%에서 19.7%로 비중이 높아져 제7차 교과서에 비해 보다 다양한 민족음악, 종교음악, 대중음악을 수록하여 학생들이 민족, 종교, 세대, 계층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교육 내용체계에 있어서 다양한 지역의 악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륙별 악곡의 분포 분석 결과에 있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민요는 골고루 수록되어 있는 반면, 아메리카 및 서유럽 지역의 제재곡이 편중되어 실린 경향이 있어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으며, 음악을 통해 세계의 종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종교문화 음악의 수록도 필요할 것으로 제언하였다. 다문화주의 이해 요소와 관련해서 질적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으

30) 유진희(2009). 중등 음악 교육의 다문화적 요소 변천 과정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31) 김은경(2014).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악곡 분석: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비교.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며, 지역 및 국가별로 다양하고 고른 분포의 민족음악을 반영하면서, 폭넓게 종교음악, 대중음악을 수록하여 학생들의 다문화적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야함을 제언하면서 다문화 악곡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음악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학습활동을 구성과 음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지도 방법의 연구의 필요성과 다문화 관련 악곡집과 각국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음악적 표현 양식에 대한 음악 자료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으며, 교사들의 다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다문화 악곡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주의 음악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연수가 충분히 실시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홍수민(2018)³²⁾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 중, 고 음악 교과서의 다문화 단원 내용 분석”에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다문화 단원의 제재곡으로 삼는 악곡과 그 학습활동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학교급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문화 단원을 구성할 때 ‘아프리카의 민요’, ‘유럽의 민요’와 같이 대륙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문화 음악은 주로 나라 혹은 민족을 대표하는 민속음악이며, 이러한 체계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에 있어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과서에서 다문화 음악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모호함을 밝혔으며 교육과정의 요소로 살펴보았을 때, 가창 활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창작 활동은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음악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김규리(2019)³³⁾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6학년 음악 교과서의 다문화 악곡을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 악곡의 수가 현

32) 홍수민(2018).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 중, 고 음악 교과서의 다문화 단원 내용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33) 김규리(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5-6학년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악곡 및 학습활동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저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지역의 다문화 악곡을 소개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각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문화적 배경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음악교과서가 기능 부분에만 편중되어 있어 표현, 감상, 생활화의 모든 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교과통합을 통해 다면적인 다문화 교육활동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특정 시기의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음악교육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교육과정별 다문화 악곡의 변천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의 비중과 학습활동 분석을 통해 다문화 음악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악곡의 비중과 학습활동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대상은 제2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 중 임의로 두 권씩을 선정된, 총 45권의 중학교 음악교과서이다. 제3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의 경우, 1종만 확보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1종만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는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대상 교과서 목록

교육과정	교과서 발행 체제	출판사	학년	출판년도	저자
2차 (1963-1973)	검정	일진출판사	1, 2, 3	1968	서수준
		일한도서출판사	1, 2, 3	1966	최영환, 권길상
3차 (1973-1981)	문교부 저작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1, 2, 3	1979	서울교육대학 1종도서(음악) 연구개발위원회

4차 (1981-1987)	검정	삼화서적 주식회사	1, 2, 3	1984	이상덕
		학연사	1, 2, 3	1984	오동일
5차 (1987-1992)	검정	시사영어사	1	1989	김용진, 강순기, 변훈
			2	1990	
			3	1991	
		(주)지학사	1	1989	정영택, 허화병
			2	1990	
			3	1991	
6차 (1992-1997)	검정	도서출판장원	1	1995	류덕희
			2	1996	
			3	1997	
		음악춘추사	1	1995	양재무
			2	1996	
			3	1997	
7차 (1997-2007)	검정	(주)두산	1	2001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
			2	2003	
			3	2003	
		동진음악출판사	1	2002	김준수, 이동훈
			2	2003	
			3	2003	
2007 개정 (2007-2013)	검정	(주)금성출판사	1	2010	양종모, 우광혁, 신현남, 윤성원, 김한순, 독고현
			2	2011	
			3	2012	
		(주)미래엔	1	2010	장기범, 송무경, 임원수, 김유경, 김경태
			2	2011	
			3	2012	
2009 개정 (2013-2017)	인정	(주)금성출판사	중학교 1-3학년 (학년 군)	2013	김용희, 김신영, 현경실, 현경채, 임인경, 최유진, 오누리
		천재교육	중학교 1-3학년 (학년 군)	2013	민은기, 이경화, 안인경, 송선형

2015 개정 (2018-현재)	인정	(주)음악과생활	중학교 1-3학년 (학년 군)	2017	양종모, 신현남, 독고현, 김한순, 장보윤, 황은주, 송미애, 양덕희
		박영사	중학교 1-3학년 (학년 군)	2018	주광식, 최은아 김영현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연구 주제 선정,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연구,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선정, 분석 기준 설정 및 교과서 분석, 자료 처리 및 분석 결과 작성, 결론 도출 및 연구 결과 해석 작성과 논문 수정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연구 절차는 다음의 <표Ⅲ-2>와 같다.

<표 Ⅲ-2> 연구 절차

연구 절차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준비	연구 주제 선정,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 연구	2020년 3월 - 2020년 8월
설계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선정	2020년 9월 - 2020년 12월
수행	분석 기준 설정 및 교과서 분석	2021년 1월 - 2021년 4월
분석	자료 처리 및 분석 결과 작성	2021년 4월 - 2021년 5월
정리	결론 도출 및 연구 결과 해석 작성, 논문 전체적 수정 및 참고문헌 정리	2021년 5월 - 2021년 6월

3. 연구 방법

가.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악곡 분석 기준

1) 다문화 영역 분석 기준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다문화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교과서 내의 다문화 영역에 대륙 및 국가별 비중을 위한 다문화 영역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 민요’, ‘이탈리아 민요’와 같이 교과서에 명확히 대륙이나 국가명으로 제시되어 있어 지역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우 다문화 요소로 인정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교과서 다문화 단원의 구성 체제에 따라 ‘다른 나라’ 혹은 ‘세계의 음악’ 등의 용어가 명시되어 다양한 문화의 의미가 드러나는 표현을 다문화 요소로 인정하였다. 셋째, 주대창·조효임 연구³⁴⁾에 따라 다문화 악곡의 분석 대상에서 자문화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은 제외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칸초네, 샹송, 흑인영가, 캐럴 등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대중음악 및 기타 장르로 분류한 악곡은 그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교과서 내의 다문화 영역 분석 기준은 다음의 <표 III-3>, <그림 III-1>, <그림 III-2>, <그림 III-3>, <그림 III-4>와 같다.

34) 주대창, 조효임(2004).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적 접근(Ⅱ)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音樂論壇 18(-), pp.43-44.

<표 III-3> 교과서 내의 다문화 영역 분석 기준

다문화 영역 제시 방식	
‘대륙명’으로 제시	<그림 III-1>에 해당
‘국가명’으로 제시	<그림 III-2>에 해당
‘다른 나라의 ’혹은 '세계의 음악' 용어로 제시	<그림 III-3>, <그림 III-4>에 해당

꿀밤나무 밑에서

▲ 11

21

아메리카 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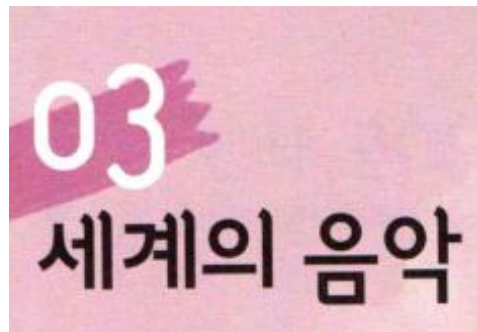
<그림 III-1> ‘대륙명’ 제시 예35)

어여쁜 장미

☞ 인적이 드문 숲속에 피어 있는 장미,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름답게 불러 보자.

한인현 역사
독일 민요

<그림 III-2> ‘국가명’ 제시 예36)



<그림 III-3> ‘다른 나라’ 용어 예시37)

<그림 III-4> ‘세계의 음악’ 용어 예시38)

2) 다문화 악곡 비중 분석 기준

첫째,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전체 악곡 중 다문화 악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쪽수 대비 다문화 영역의 쪽수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겹표지와 차례 등 쪽수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교과서에서 쪽수가 메겨져 있는 부분만을 계수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다만 악곡을 계수할 때, 반 쪽 정도의 내용의 경우는 0.5쪽으로 계산하여 계수하였다. 다문화 영역에 관련된 내용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악기, 세계의 전통 음악 축제 등으로 다문화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된 부분을 모두 다문화 영역으로 계수하였다.

둘째, 다문화 영역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교과서에 제시된 제재곡과 참고곡을 분석하였다. 해당 악곡에 대한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이 개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 제재곡으로 분류하였으며, 완전하지 않은 형태의 짧은 악곡의 경우라도 제시된 악곡의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에 포함되는 경우 참고곡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나.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장르별 비중 분석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장르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과서를 ‘국악’, ‘서양음악’, ‘다문화음악’, ‘대중음악’ 등 장르별로 비중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도구는 김미숙 외 11명의 「음악과 교재 연구」³⁹⁾에서 제시된 중학교 교과서 분석을 음악의 관점에서 활동 영역 및 장르별 비중 분

35) 이상덕(1984). **중학교 음악1**. 삼화서적주식회사. p.58.

36) 류덕희(1995). **중학교 음악1**. 도서출판장원. p.32.

37)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2001). **중학교 음악1**. (주)두산. p.47.

38) 민은기, 이경화, 안인경, 송선형(2013). **중학교 음악**. 천재교육. p.200.

39) 김미숙 외 11명(2016). **음악과 교재연구**. (주)학지사. pp.158-159.

석 기준을 참고하여 ‘기타1’에는 어떤 특정 장르에 넣기 힘든 창작과 생활화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기타2’에는 차례, 속표지,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다. 다문화 악곡의 대륙 및 국가별 비중 분석

다문화 악곡이 얼마나 다양한 나라와 문화권의 음악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육과정별 각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을 대륙 및 국가별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다문화 악곡들은 항목에 따라 백분율(%)로 표시하여 다문화 악곡의 지리에 따른 분포도를 알아보고, 세계 어느 지역의 다문화 악곡이 각각의 교육과정별로 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수록되었는지 정량화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 악곡의 대륙별 분류는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를 따라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대륙 총 5개 대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정확한 국가명이 명시되지 않은 에스파냐와 보헤미아 국가의 악곡의 경우 현재 각 민족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체코의 악곡으로 분류하였다. 스코틀랜드 민요와 웨일즈 민요의 경우는 영국의 악곡으로 통합하여 계수하였으며, 하와이 민요의 경우 분류에 있어서 행정구역상 미국의 악곡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라. 다문화 악곡의 학습활동 분석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에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에 따라 각 대륙별로 교과서 내에 가장 많이 수록된 다문화 악곡을 두 개씩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악곡을 중심으로 교과서에서 다문화 악곡 제시 형태와 학습활동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 다문화 악곡의 학습활동 분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악곡의 제시 형태 분석에 있어서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의 연주 형태(제창, 돌림노래, 부분2부 합창, 2부 합창, 4부 합창, 돌림노래)와 음악 요소(리듬, 화음, 형식, 빠르기)와 가사의 제시 방법(원어 가사, 원어 한국어 발음 가사, 원어 영어 발음 가사, 한국어 변안가사), 음악 요소(리듬, 화음, 형식, 빠르기)와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삽화를 살펴보고,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선정된 다문화 악곡의 학습활동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요 학습활동 내용을 위주로 비교·분석하여 교육과정별로 다문화 악곡에서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IV. 연구 결과

1.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악곡 비중 분석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전체 악곡 중 다문화 악곡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별 다문화 영역의 비중은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악곡의 비중

교육과정	출판사	전체 쪽수	다문화 악곡 쪽수	비중 (%)	
2차	일진출판사	288	36	12.5	11.5
	일한도서출판사	270	28	10.4	
3차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288	34	11.8	11.8
4차	삼화서적 주식회사	204	26	12.7	13.9
	학연사	192	29	15.1	
5차	시사영어사	207	26	12.6	12.6
	지학사	207	26	12.6	
6차	도서출판 장원	207	18	8.7	11.1
	음악춘추사	207	28	13.5	
7차	(주)두산	232	29	12.5	11.6
	동진 음악출판사	208	22	10.6	
2007 개정	금성출판사	348	35	10.0	8.6
	미래엔	324	25	7.7	
2009 개정	(주)금성출판사	262	25	9.5	7.0
	천재교육	266	12	4.5	
2015 개정	박영사	234	18	7.7	6.3
	음악과 생활	252	16	5.1	
총합		4,196	433	10.5	

<표 IV-1>을 보면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중학교 음악교과서 45종의 전체 쪽수는 4,196쪽이며, 다문화 영역의 쪽수는 433쪽으로 약 10.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육과정별 전체 쪽수 대비 다문화 영역의 비중을 살펴보면 2차 교육과정이 11.5%, 3차 교육과정이 11.8%, 4차 교육과정이 13.9%, 5차 교육과정이 12.6%, 6차 교육과정이 11.1%, 7차 교육과정이 11.6%, 2007개정 교육과정이 8.6%, 2009 개정 교육과정이 7.0%, 2015 개정 교육과정이 6.3%으로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영역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영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교육과정으로 4차 교육과정이 13.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6.3%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장르별 분석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장르별 비중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음악교과서에는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재까지 음악의 모든 장르 중에서 ‘서양음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차 교육과정부터 6차 교육과정까지 65%이 넘는 서양음악의 비중이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30%대로 감소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장르는 ‘국악’으로, 2차 교육과정에서 8.7%에서 현재 23.6%로 그 비중이 늘어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제2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에서 전혀 없던 대중음악이 2007 개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각각 12.8%과 15.9%로 늘어났다.

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양음악 중심이었던 우리의 교과서가 서양음악은 줄고 국악, 대중음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수록되는 경향을 띄고 있으나, 다문화 음악은 10%미만인 것

을 볼 수 있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영역이 강조된 것에 비해서 교육과정별 다문화 악곡의 비중이 감소한 까닭은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과서에서 국악의 비중이 늘어나고 대중음악의 비중 증가로 제2차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내에서 점차 다양한 영역이 다루어져 다문화 악곡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별 교과서의 자세한 음악 장르별 비중은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장르별 비중

교육과정	국악 (%)	서양음악 (%)	다문화 음악 (%)	대중음악 (%)	기타1 (%)	기타2 (%)	합계 (%)
2차	8.5	73.1	11.5	0.0	1.3	5.6	100
3차	11.2	69.9	11.8	0.0	1.2	5.9	100
4차	9.7	69.7	13.9	0.0	0.6	6.1	100
5차	14.2	68.8	12.6	0.0	0.1	4.3	100
6차	18.2	65.4	11.1	0.0	1.0	4.3	100
7차	22.5	39.7	11.6	8.4	4.4	13.4	100
2007 개정	20.0	35.5	8.6	12.8	6.7	16.4	100
2009 개정	21.7	33.7	7.0	15.9	10.1	11.6	100
2015 개정	23.6	27.5	6.3	15.7	13.5	13.4	100

3.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수록된 다문화 악곡의 대륙 및 국가별 분포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의 대륙 및 국가별로 분석 결과 유럽이 총 210회로 60.3%를 보이면서 5대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아시아가 총 68회로 19.5%, 아메리카가 총 48회로 13.9%, 오세아니아가 총 13회로 3.7%, 아프리카가 총 9회로 2.6%의 순으로 비중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의 민요는 제2차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총 68곡이 수록되었다. 국가별로 제재곡 수록 횟수를 살펴보면, 중국과 인도네시아 지역 중심의 제재곡이 편중되어 실린 경향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 국적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음악 교과서에 아시아권의 민족음악을 골고루 수록하여 자국민의 고국 음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환경을 고려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과 문화적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유럽 지역의 민요는 제2차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총 210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유럽 지역의 체코 민요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스위스, 영국, 독일이 속한 서유럽 지역을 중심의 제재곡이 편중되어 실린 경향을 볼 수 있다. 대륙별 수록 횟수를 살펴보면, 아메리카 지역의 민요는 교육과정별로 총 48곡 수록되어 있다. 아메리카 지역에 수록된 민요의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북아메리카에 속하는 미국 민요가 19곡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멕시코민요가 17곡으로 많이 수록되었다. 다만, 남아메리카에 속하는 아르헨티나 민요는 2곡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교과서에서 북아메리카 지역 민요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메리카 지역의 민요에서 어느 한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나라의 음악 및 문화적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오세아니아 민요는 제2차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걸쳐 총 13곡 수록되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민요는 교육과정별로 총 9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체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가장 적게 수록되었다. 아프리카 지역의 민요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고르게 수록되었다. 바람직한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해 여러 나라의 민요를 수록할 때 각 대륙별 분류에서 국가별로 다양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별 다문화 악곡의 대륙 및 국가별 분포도는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교육과정별 다문화 악곡의 대륙 및 국가별 분포도

지역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종합(회)			
	일진	일한	국정교과서	삼화	학연사	시사	지학사	장원	음악춘추	동진	두산	금성	미래엔	금성	천재	박영사	음악과생활	국가별합계	대륙별합계	비중(%)	
아시아	중국	1	1	2	0	0	1	1	0	1	1	2	3	1	2	1	1	1	19	68	19.5
	인도네시아	1	0	0	0	0	1	1	1	1	2	1	0	0	1	1	0	11			
	태국	1	0	1	0	0	1	1	0	0	1	1	1	0	0	0	0	7			
	이스라엘	0	0	0	0	0	0	0	0	0	1	1	2	0	1	1	1	7			
	일본	0	0	0	0	0	0	0	0	0	0	2	2	1	1	0	0	6			
	말레이시아	1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3			
	필리핀	0	0	0	0	0	0	0	0	0	0	1	1	0	1	0	0	3			
	대만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			
	터키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2			
	스리랑카	0	0	0	0	0	0	0	0	0	1	0	1	0	0	0	0	2			
	이란	0	0	0	0	0	0	0	0	1	0	1	0	0	0	0	0	2			
	팔레스타인	0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2			

	베트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인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소계	5	1	5	0	0	3	4	1	3	3	8	12	8	3	6	3	3	68			
아 메 리 카	미국	2	2	0	2	2	0	0	1	2	4	1	0	1	1	1	0	0	19	48	13.9	
	멕시코	1	1	2	0	2	2	2	0	2	2	2	0	2	0	0	1	0	17			
	브라질	1	0	1	0	0	0	1	1	0	0	1	1	0	0	0	0	1	7			
	캐나다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2			
	아르헨티나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2
	자메이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소계	4	4	3	2	4	2	4	2	4	6	4	1	3	2	2	2	1	48			
유 럽	독일	4	5	7	5	6	5	3	0	5	4	4	2	2	1	1	2	1	57	210	60.3	
	영국	1	2	4	3	4	2	4	2	1	2	3	0	1	0	1	0	0	30			
	프랑스	3	2	3	3	2	1	3	2	2	3	1	1	0	0	1	1	1	29			
	스위스	4	1	1	2	0	0	2	1	1	0	2	2	1	1	1	0	1	20			
	체코	0	1	2	2	0	1	3	2	1	1	1	2	1	0	0	1	0	18			
	스페인	2	1	2	1	1	0	0	1	2	1	2	1	2	0	0	0	0	16			
	폴란드	0	0	2	2	2	0	1	0	0	0	0	1	0	1	1	0	0	10			
	러시아	0	0	0	0	0	0	0	0	0	2	1	2	0	1	0	1	0	7			
	노르웨이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4			
	오스트리아	0	0	0	0	0	2	0	0	0	1	1	0	0	0	0	0	0	4			
	이탈리아	1	0	1	0	1	0	1	0	0	0	0	0	0	0	0	0	0	4			
	스웨덴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핀란드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3
	헝가리	1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3			
네덜란드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아일랜드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소계	21	15	22	19	16	12	18	8	12	14	16	11	7	4	5	7	3	210			
오 세 아 니 아	뉴질랜드	0	0	0	0	0	0	0	0	0	1	1	1	1	0	0	1	1	6	13	3.7	
	오스트레일리아	1	0	1	0	0	0	1	0	0	1	0	0	0	0	0	1	1	6			
	사모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소계	1	0	1	0	0	0	1	0	0	2	1	1	1	1	0	2	2	13			
아 프 리 카	가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	3	9	2.6	
	케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2			
	남아프리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서아프리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아프리카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탄자니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소계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3	4	9			
총 합 (%)		31	15	23	21	20	17	27	11	19	25	29	25	19	10	14	17	13	348	100		
		9.1	4.3	6.6	6.0	5.7	4.9	7.6	3.2	5.6	7.2	8.3	7.2	5.6	2.9	4.0	4.9	3.7				

4. 대륙 및 국가별 다문화 악곡 수록 현황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들을 대륙 및 국가별로 분석하면 다음의 <표 IV-4>와 같다.

<표 IV-4> 대륙 및 국가별 다문화 악곡 분류

대륙명	국가명	악곡명
아시아	중국	모리화, 만리장성, 이름 모를 꽃, 타이후, 중국의 자장가
	인도네시아	내 어머니, 트랑블란, 라사 사양게, 봉가완 솔로, 양거츄을 주세, 첼밀밀
	태국	보름달, 풍년의 노래, 친구를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학, 안녕, 줌 갈리 갈리, 하바 나길라
	일본	벚꽃, 봄이 왔네, 사쿠라 사쿠라, 일본의 자장가
	말레이시아	람베 람베
	필리핀	꽃은 지고, 아들아
	대만	아미족의 노래
	터키	여름날, 우스쿠다라
	스리랑카	코끼리 바나나
	이란	소맥꽃
	팔레스타인	안녕, 줌가리
	베트남	베오 꽃과 구름
	인도	달아달아
아메리카	하와이	알로하오에
	미국	꽃밤나무 밑에서, 콜로라도의 달, 환영의 노래, 산타페에의 길, 싱글벙글 선생님, 종소리, 포장마차, 내 사랑 보니, 산 아가씨, 우정, 타이디오, 나는 철도를 놓았네, 노란 리본
	멕시코	라 쿠카라차, 아름다운 하늘, 웃는 얼굴,
	브라질	춤추는 삼바, 자장가, 멕시코 왈츠, 삼바 렐레
	캐나다	기러기
	아르헨티나	파라 파라, 나의 농장
자메이카	파파야 나무를 흔들자	

유럽	독일	노래는 즐겁다, 어여쁜 장미, 잘 있거라 내 고향, 기러기, 봄바람, 홀라히 홀라호, 겨울밤, 대장간의 망치 소리, 뮌헨 춤곡, 바람은 춤춘다, 봄, 뺨꾸기, 산에 들에, 저녁중, 저녁노을, 젊음이, 즐거운 여름, 즐겁게 노래하자, 하얀새, 황혼, 봄바람, 물방아, 한 떨기 국화, 음악은 영원히
	영국	아름다운 나의 벗, 고향을 떠나, 피크닉의 노래, 고향의 하늘, 그 옛날, 마을 아가씨, 마을 찾아 가는 소녀, 물방아, 봄바람, 산은 부른다, 아름다운 것들, 아 해가 어둠 속에 저물어 가네, 즐거운 휴일, 지나간 날
	프랑스	영광, 아비뇽 다리 위에서, 양치기 소녀, 송이밤, 춤추는 소녀, 캠프의 노래, 달빛 아래에서, 동네 한 바퀴, 왕의 행차, 초여름의 아침, I See You, 저녁 종소리
	스위스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 아름다운 엠멘탈, 오! 브리넬리, 등산, 산새, 유피디
	체코(=보헤미아)	푸른목장, 별을 보고, 꿈, 꿈나라 하늘나라, 노래하자, 목장 길 따라, 산들바람, 홀랄라
	스페인	고향생각, 아이 아이 아이, 로망스, 두 어린이
	폴란드	아가씨들아, 즐거운 노래, 폴로네이즈의 노래
	러시아	불가강의 뱃노래, 꽃의 계절, 러시아의 자장가, 스텐카 라진, 아! 기쁜 두나이, 호롱불
	노르웨이	고향, 눈길, 멀고 먼 동쪽나라
	오스트리아	메아리, 산 위에서, 알프스의 봄
	이탈리아	마을 찾아가는 소녀, 티리툼바
	스웨덴	물레감는 아가씨, 어부의 노래
	핀란드	들어봐 종이 울려, 숲속으로 가면, 심부름
	헝가리	집시의 비가, 소풍
	네덜란드	사라스폰다
아일랜드	내 고향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연가
	오스트레일리아	쿠카블라, 월칭 마틸타
	사모아	코코넛 껍데기
아프리카	가나	체체쿨레
	케냐	잠보
	아프리카	Saturday Night
	서아프리카	누구나 토요일 밤을 좋아해
	남아프리카	만기니 비와 함께 춤추자
	탄자니아	시마마 카

5. 교육과정별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의 학습활동 비교·분석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각 대륙별로 교과서 내에 가장 많이 수록된 다문화 악곡을 두 곡씩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악곡의 학습활동 변화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교육과정별로 5개 대륙에 가장 많이 수록된 다문화 악곡은 아시아 대륙의 중국 민요 ‘모리화’와 인도네시아 민요 ‘양거춤 추세’이며, 유럽 대륙에서는 스페인 민요 ‘고향생각’과 체코 민요 ‘푸른 목장’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하와이 민요 ‘알로하오에’와 멕시코 민요 ‘라쿠카라차’가 선정되었으며,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는 뉴질랜드 민요 ‘연가’와 ‘월칭 마틸다’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가나 민요 ‘체체쿨레’와 케냐 민요 ‘잠보’가 선정되었다. 다음 <표 IV-5>.는 음악교과서에 대륙별로 최다 수록된 다문화 악곡이다.

<표 IV-5>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대륙별로 최다 수록된 다문화 악곡

대륙명	국가명	악곡명	교육과정									수 록 횟 수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07 개정	09 개정	15 개정	
아시아	중국	모리화	·	1	·	2	1	3	3 ⁴⁰⁾	2	2	14
	인도네시아	양거츨 추세	·	·	·	2	1	1	·	·	·	4
유럽	스페인	고향 생각	2	·	2	1	2	2	1	1	2	13
	체코	푸른 목장		1	2	2	2	2	2	·	1	12
아메리카	하와이	알로하오에	3	1	2	2	2	1	·	·	1	12
	멕시코	라 쿠카라차	1	1	2	2	·	2	1	·	1	10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연가	·	·	·	·	·	2	2	·	2	6
	오스트레일리아	월칭 마틸다	·	·	·	·	·	1	·	·	2	3
아프리카	가나	체체쿨레	·	·	·	·	·	·	·	1	2	3
	케냐	잡보								1	1	2
합계			6	4	8	11	8	14	9	5	14	79

40)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음악교과서는 학년별 음악교과서로 ‘모리화’ 악곡은 1, 2, 3학년에 각각 제시되었다.

가. 아시아 대륙

1) 중국 민요 ‘모리화’

가) 악곡의 제시 형태

모 리 화
(2부 2악기)
선경사역사
중작인요

Andante
[1]mp [2]f
한 송이 아름다운 모리화 한 송이 아름다운
모리화 가지마다 널치는 그 옥한향기의
향기의 하얀 꽃 아름다운 꽃을 천 구에
한 송이 보네면 - 다 모리화 - 모리화

<그림 IV-1> 3차 교육과정
문교부 2학년

모 리 화
(제창)
역사시 비창 / 중국 민요

Moderato
한 송이 아름다운 모리화 한 송이 아름다운 모리화
好 一朵美丽的茉莉花 好 一朵美丽的茉莉花
[말음] 리오 이두어 매이리디 모리화 리오 이두어 매이리디 모리화
화 가지마다 널치는 그 옥한향기의
花芬芳美丽 - 满枝 又香 - 又白 -
화 흰 향 매이리 만 프 야 요 삼 - 요 빠이
하얀 꽃 아름다운 꽃을 천 구에 계 한 송이
人 - 人 - 夸 谁 - 我 - 来 将 你 摘 - 下 送 给 -
谁 谁 - 夸 谁 - 谁 - 谁 谁 谁 谁 谁 谁 谁 谁
보내면 - 다 모리화 - 모리화 -
别 - 人 - 捧 茉莉花 - 茉莉花
비애엔 - 사후 모리화 - 모리화

<그림 IV-2> 2015 개정 교육과정
박영사①

<그림 IV-1>과 <그림 IV-2>를 살펴보면, 3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2부 돌림노래로 제시되어 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제창으로 제시되어 있어 연주 형태에의 차이점이 있다. 악보에 제시된 빠르기말에 관련하여 3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느리게(Andante)’로 제시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보통 빠르기(Moderato)’로 제시되어 두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빠르기말에 관련 하여 차이가 있다. 박자에 있어서 두 곡 모두 2/4박자로 표시하고 있으며, 조성 또한 ‘D Major’로

동일하다. 음악적 요소에 있어서 3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악보에 ‘조금 여리게(mp)’로 썸여림이 제시되어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따로 썸여림이 제시되지 않았다. 가사 제시 방법을 살펴보면, 3차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에는 한글 가사만 제시되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교과서는 한글 가사에 원어 가사와 원어와 발음이 같이 제시되어 학생들의 제재곡 학습에 있어 도움을 준다. 악보에 수록된 삽화를 살펴보면, 3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따로 삽화가 수록되지 않았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에서 모리화를 연상하게 하는 색채감이 있는 삽화가 실려 있어 학생들이 제재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나) 학습활동 내용

중국 민요 ‘모리화’는 3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14회 수록되었다. 이 곡에 제시된 주요 학습활동은 ‘민요를 감상하고 노래를 부르기’, ‘여러 나라의 민요를 듣거나 노래 부르면서 그 특징을 신체로 표현해 부르기’, ‘다양한 아시아 지역의 민요를 찾아 악곡의 느낌을 살려 노래 불러 보기’, ‘세계 각 국의 민요를 불러보고 비교해 보기’, ‘민요를 불러 보고 지도에서 여러 나라의 위치를 알아보는 활동’ 등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3차, 5차, 6차,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학습활동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3차, 6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학습활동 내용이 없이 악보만 나와 있었으며, 5차,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는 학습활동 내용 따로 제시되지 않고 감상의 요점이나 감상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다음 <표 IV-6>는 5차,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모리화’의 학습 내용이다.

<표 IV-6> 5차,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모리화’의 학습 내용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5차	시사영어사 2학년	감상의 요점 ○ 각 나라의 특색을 띤 민요의 차이를 느껴 보자. ○ 각 나라의 민요를 감상해 보고 노래 불러 보자 ○ 각 나라의 독특한 음계에서 생기는 민요의 차이를 이해하자.
7차	동진음악출판사 2학년	감상 목표 ① 여러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부른다. ② 여러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제재곡에 나오는 음들을 표시하여 음계를 이해하고 노래하기’와 ‘다음의 악보를 게이름으로 노래하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아시아 지역의 민요를 찾아 악곡의 느낌을 살려 노래하기’가 제시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노랫말의 뜻을 생각하며 중국어로 노래 불러 보기’, ‘제재곡에 사용된 음을 오선보에 그려보기’ 활동,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사용된 제재곡을 감상하고 그 느낌을 적어 보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 <표IV-7>는 교육과정별 교과서에 제시된 모리화의 학습 활동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IV-7>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모리화’ 학습활동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2007 개정	금성출판사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에 나오는 음들을 표시하여 음계를 이해하고 노래해보자 · 다음의 악보를 게이름으로 노래해 보자.
2009 개정	천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아시아 지역의 민요를 찾아 악곡의 느낌을 살려 노래 불러 보자.
2015 개정	음악과 생활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아시아 지역의 민요를 찾아 악곡의 느낌을 살려 노래 불러 보자. · 노래말의 뜻을 생각하며 중국어로 노래 불러 보자, 제재곡에 사용된 음을 오선보에 그려 보자 ·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사용된 제재곡을 감상하고 그 느낌을 적어 보자.


<표 IV-7>에서 교육과정별 교과서에 수록된 ‘모리화’의 학습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제재곡에 나오는 음들을 표시하여 음계를 이해하고 노래해보기’, ‘제재곡에 사용된 음을 오선보에 그려보기’, ‘다양한 아시아 지역의 민요를 찾아 악곡의 느낌을 살려 노래 부르기’와 같이 가창 영역 학습 활동이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걸쳐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 인도네시아 민요 ‘양거춤 추세’

가) 악곡의 제시 형태

6 가믈란 : 주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합주 음악을 말하며, 첼금류나 공 등을 중심으로 연주한다. (예) ‘양거춤 추세 등)

〈양거춤 추세〉



모두들 합께모여- 양 거춤-춤시 다



〈그림 IV-3〉 6차 교육과정
도서출판장원 3학년

1 양거춤 추세

인도네시아 민요



모두들 합께모여- 양 거춤-춤시 다
온동네 사람들이 우리들 을보 네
웃음진 일 -굴로 동그렇게춤 추 세
우리 양 거춤 추며 하-루즐기 세

〈그림 IV-4〉 7차 교육과정
동진음악출판사 2학년

〈그림 IV-3〉과 〈그림 IV-4〉를 살펴보면, 두 곡은 4/4박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빠르기말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조성은 ‘C Major’로 두 곡 동일하다. 악곡의 제시 형태에 있어 6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4마디의 짧은 악곡으로 제시되었으나,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전체 악보가 실려 있으며, 도돌이표가 제시되어 악곡을 되풀이하도록 하고 있다. 악보에 수록된 삽화를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인도네시아의 민속 음악에 관련하여 ‘가믈란’에 대한 설명과 하단에 합주를 연상하게 하는 삽화가 수록하여 학생들의 제재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나) 학습활동 내용

인도네시아 민요 ‘양거춤을 추세’는 5차, 6차,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4회 수록되었다. 5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학습활동 없이 악보만 제시되었으며 6차, 제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주요 학습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감상의 요점과 감상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표 IV-8>은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인도네시아 민요 ‘양거춤을 추세’의 학습 내용이다.

<표 IV-8>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양거춤을 추세’ 학습 내용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6차	도서출판장원 3학년	<p>감상 — 세계의 음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세계의 여러 음악은 아주 적은 예에 지나지 않지만, 이 곡들을 감상해 보고 각각의 특징과 느낌을 비교해 본다.
7차	동진음악출판사 2학년	<p>감상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부른다. 여러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

서에는 ‘조금 느리게(Andantino)’로 제시되어 두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 빠르기말 제시에 있어 차이가 있다. 박자는 두 곡 모두 4/4박자로 동일하며, 악곡의 조성을 살펴보면, 2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D minor’로 제시되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E minor’로 제시되어 두 교육과정에서 다르게 제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악곡의 흐름에 있어서는 두곡 모두 ‘단조-장조-단조’로 바뀌며 곡의 분위기가 변환되면서, 단조로 돌아가는 진행으로 하나의 악곡 내에서 장조와 단조를 모두 느껴볼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또한, 두 곡 모두 악보에 *P*, *mp*, *mf* 등의 셈여림표가 제시되어 있어 악상을 살려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를 살펴보면, 2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는 따로 삽화가 없고 흑백으로 인쇄되었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원곡 스페인 나라의 특징과 관련된 ‘성가족 성당’과 ‘투우’에 대한 그림을 첨부하여 제재곡의 이해를 돕고 있다.

나) 학습활동 내용

스페인 민요 ‘고향생각’은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13회 수록되었다. 이 곡에 제시된 주요 학습활동은 ‘제시된 중심 리듬을 쳐보는 활동’, ‘음악의 특징을 살려 노래하는 활동’, ‘제재곡에서 조바꿈된 부분의 가락과 화음을 감각적으로 느껴 보는 활동’, 제재곡의 짜임을 파악하고, 기악 반주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노래하는 활동, ‘제재곡의 주요 리듬을 익힌 후에 박자를 치며 게이름으로 보고 불러보는 활동’ 등이 제시되었다. 다만 2차, 3차,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활동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4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제시된 중심 리듬을 쳐 보는 활동’, ‘제시된 가락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찾아 노래를 불러보는 활동’, ‘가락의 특징을 살펴보고, 음정과 셈여림을 바르게 표현하는 활동’, ‘마단조와 사장조의 관계를 살펴보고 조바꿈을 감각적으로 파악해보는

활동'이 제시였으며, 5차, 6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는 '제재곡을 게이름으로 불러보고 반복·담음·대조된 가락에 각각 색칠을 하여 노래의 짜임새를 알아보는 활동'으로 단조의 부분과 장조의 부분에 있어서 가락과 화음의 울림이 어떻게 다른지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다.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제재곡의 짜임을 파악하고 기악반주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노래를 불러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사라사테의 '치고이너바이젠'을 감상하고 에스파냐 민요를 불러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다양한 유럽의 다른 나라 민요를 찾아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별 스페인 민요 '고향생각'의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가장 영역의 학습활동이 여러 번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표 IV-9>는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스페인 민요 '고향생각'의 학습활동이다.

<표 IV-9>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고향생각' 학습활동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4차	삼화서적 3학년	· 다음 중심 리듬을 쳐 보자 · 다음은 조바꿈된 가락이다. 그 특징을 살려 노래해 보자.
5차	시사영어사 3학년	· 조바꿈된 다음 가락을 건반 악기로 연주하여, 단조의 부분과 장조의 부분에 있어서 가락과 화음의 울림이 어떻게 다른가 느껴보자.
6차	도서출판 장원 3학년	· 계명으로 노래하면서 마 단조→사 장조→마 단조로 조바꿈이 된 부분을 찾아 내고, 그 느낌을 알아보자. · 조바꿈은 흔히 관계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관계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7차	동진음악 출판사 3학년	· 제재곡을 단순화한 가락을 보고부르기 · 다음과 같은 리듬을 즉흥적으로 치며 제재곡을 불러 보자 · 제재곡 2성부를 다음의 여러 방법으로 편성하고 모듬별로 합주, 중주 등으로 연주해 보자.
2015	박영사②	· 사라사테의 '치고이너바이젠'을 감상하고 에스파냐 민요를 불러보자.

2) 체코 민요 ‘푸른 목장’

가) 악곡의 제시 형태

푸른 목장
(원곡 2부 합창)
원곡의 전사
박시인의 편곡

오! 푸른바람 불어와 푸른빛물결 일으킨다네
오! 온풍무른 이 목장 수물은갈도 자란 새(새어)
눈썹 아담하게 재울 줄이루고 영의 새들까지 앉을 이되있네 -
달란 음조으며 눈발 울적시며 노래 할부르네 흥년 가을

<그림 IV-7> 3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1학년

푸른 목장 (부분 2부 합창)
박시인의 편곡

강소천 역사 · 보헤미아 민요

오 푸른바람 불어와 푸른빛물결 일으킨다네
오 온풍무른 이 목장 수물은갈도 자란네
눈썹 아담하게 재울 줄이루고 영의 새들까지 앉을 이되있네 -
달란 음조으며 눈발 울적시며 노래 할부르네 흥년 가을

<그림 IV-8> 2007 개정 교육과정
금성 2학년

<그림 IV-7>과 <그림 IV-8>을 살펴보면, 3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반주 있는 오선보로 제시되어 있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반주가 없는 단선보로 제시되어 두 교육과정에서 악곡 제시 형태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연주 형태에 있어 두 곡은 동일하게 부분 2부 합창 2성부로 제시되어 있으며, 약박에 악센트가 있어 당김음을 살려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 요소에 있어 박자는 두 곡 모두 4/4박자이며, 악곡의 진행속도는 $J = 112$ 로 두 교육과정의 악곡의 박자와 빠르기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조성에 있어 두 곡 모두 ‘G Major’로 동일하며, ‘*mp*, *p*, *crescendo*’으로 셈여림이 제시되어 있어 악곡의 해당 마디에서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나) 학습활동 내용

체코 민요 ‘푸른 목장’은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12회 수록되었다. 이 곡에 제시된 주요 학습활동은 ‘가락을 노래하면서 리듬을 쳐 보는 활동’, ‘곡의 형식을 파악하고, 곡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활동’, ‘사장조의 음계를 게이름으로 부르고, 주요 2화음의 짜임새를 알아보는 활동’, ‘점음표와 당김음의 리듬을 정확히 표현하고 악곡을 통하여 느껴보는 활동’, ‘조바꿈된 부분을 알아보고, 느낌을 살려 노래 부르는 활동’, ‘북유럽과 동유럽의 민요를 부르고 지역의 정서를 이야기 하는 활동’ 등이 있다. 3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따로 학습활동이 제시되지 않았다. 4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다음 가락을 노래하면서 리듬을 쳐보는 활동’, ‘당김음에 유의하면서 노래를 불러 보는 활동’, ‘형식을 파악하고 곡 전체의 흐름을 생각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5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사장조 음계와 건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게이름 부르기 및 주요 3화음에 의한 마침꼴 합창을 하는 활동’, ‘당김음으로 된 리듬 위에 ○ 표를 하고, 바르게 쳐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6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사장조 음계와 건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주요 3화음에 의한 마침꼴 합창을 해보는 활동’, ‘스타카토의 쓰임을 알아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다음의 발성 연습곡을 바른 자세와 호흡, 정확한 발음으로 불러보도록 제시하는 활동’, ‘다음과 같은 1박-3박의 기본 리듬카드로 4/4박자의 리듬을 만들어 바르게 쳐 보는 활동’, ‘여러 가지 가락악기로 연주해 보고 독주, 2중주로 연주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당김음을 살려 4/4박자의 악곡을 노래하기’ 학습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에서는 ‘당김음 리듬을 일정한 박자에 맞추어 바르게 표현하기’, ‘성부의 어울림을 느끼며 부분 2부 합창으로 불러보기’ 활동, ‘신체 동작으로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활동’, ‘단음계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느낌을 이야기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북유럽과 동유럽의 민요를 부르고 지역의 정서를 이야기해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표 IV-10>은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체코 민요 ‘푸른 목장’의 학습활동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별 체코 민요 ‘푸른목장’의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당김음의 리듬을 정확히 표현하고 악곡을 통하여 느껴보는 리듬에 관련된 학습활동이 여러 번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0>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푸른 목장’ 학습활동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4차	삼화서적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가락을 노래하면서 리듬을 쳐 보자. · 표를 한 당김음에 유의하면서 노래를 불러 보자.
	학연사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이름과 으뜸음, 계이름의 관계를 확실히 이해하자. · 두 파트로 나누어 다음 반주의 리듬을 연습한 다음, 당김음 리듬과 셈여림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자. · ‘푸른 목장’의 형식을 파악하고, 곡 전체의 흐름을 생각하여 보자.
5차	시사영어사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을 계이름으로 보고 부르면서, 이 곡 전체의 리듬을 적어 같은 꼴을 찾아보고, 셈여림도 표시해 보자. · 다음에 당김음으로 된 리듬 위에 ○표를 하고, 바르게 쳐 보자.
6차	도서출판 장원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장조의 음계를 계이름으로 부르고, 주요 3화음의 짜임새를 알아보자. · 이 곡의 형식을 알아보자. · 스타카토의 쓰임을 알아보자.
7차	동진음악 출판사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발성 연습곡을 바른 자세와 호흡, 정확한 발음으로 불러 보자. · 다음과 같은 1박-3박의 기본 리듬카드로 4/4박자의 리듬을 만들어 바르게 쳐 보자.
2007 개정	미래엔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김음을 살려 4/4박자의 악곡을 노래해 보자.
2015 개정	박영사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유럽과 동유럽의 민요를 부르고 지역의 정서를 이야기해 보자.

다. 아메리카 대륙

1) 하와이 민요 ‘알로하오에’

가) 악곡의 제시 형태

54

● 알로하오에

Andante $\text{♩} = 76$ 최희이 편요

1. 깊은 구름하늘가리고 이 별 의남은왔도 다.
2. 알로하오-나의꽃결소 리 이 별 물소리위하 고.

다시 만남날기-애와 조 서로 의망하여 떠나 리.
남아 다 가는길-애가 에 우리 의 악령을 잡혀 해.

Humming

알 로 하 오에, 알 로 하 오에, 꽃 피는시절 다시 만나 리 니.

<그림 IV-9> 4차 교육과정
삼화서적 주식회사 2학년

알로하오에

(부분 2부 합창) 백사자 피상 / 하와이 민요

Moderato mp mf mp

깊은 구름하늘가리고 이 별 의남은왔도 다시
오 는겨울결소리 이 별 물소리위하 고 날 마

만 남날기대하 고 서로 작 별하여 떠나 리 알
다 가는길애기 때 우리 각 별을순 괴하 리

로 하오에 알 로 하오에 꽃 피는시절에다시 만나 리 알

로 하오에 알 로 하오에 다시 만남때까지 - 플러 지

<그림 IV-10> 2015 개정 교육과정
박영사①

<그림 IV-9>와 <그림 IV-10>을 살펴보면, 4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반주 있는 오선보로 제시되어 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반주가 없는 단선보로 제시되어 있어 두 교육과정 악곡의 제시 형태에 있어 차이가 있다. 악곡에 제시된 음악 요소를 살펴보면, 4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느리게(Andante)’로 제시되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보통 빠르기로(Moderato)’로 제시되어, 두 교육과정의 음악교과

서에서 제시된 악곡에서 빠르기 변화를 볼 수 있다. 박자표시에 있어서는 두 곡 모두 4/4박자로 표시하고 있으며, 악곡의 진행속도에서 제4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J=76$ 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악곡의 조성은 모두 'G Major'로 동일하며, 'mp, p, crescendo'로 셈여림이 제시되어 있어 악곡에서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악곡의 제시 형태에 있어서 두 곡 모두 가사가 1절과 2절로 이루어져 있어 반복하도록 하였다.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 삽화를 살펴보면, 4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제재곡 '알로하오에'와 관련된 하와이 국가의 '야자수 나무' 그림을 컬러로 첨부하여 학생들에게 하와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학습활동 내용

하와이 민요 '알로하오에'는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총 12회 수록되었다. 이 곡에 제시된 주요 학습활동은 '다음 가사에 리듬을 적어 당김음 리듬에 ○표 하고 바르게 노래 부르는 활동', '제재곡의 악곡 구성을 파악하고, A·B의 대조적 균형미를 살려 보는 활동', '제재곡에 사용되는 우쿨렐레의 코드를 익혀 보고 연주해 보는 활동', '아메리카 민요의 특징을 이해하고 개성 있게 불러 보는 활동' 등이 있다. 각 교육과정 중에서 2차, 3차,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학습활동이 따로 없이 악보만 제시되었으며, 4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당김음에 유의하여 노래를 불러보기 활동', '다음 가락을 계이름으로 불러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 당김음을 살려 부르도록 하였다. 5차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에는 '다음 가사에 리듬을 적어 당김음 리듬에 표시를 하고 바르게 노래를 불러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6차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에서는 '높은 음자리보표의 주된 가락과 낮은 음자리보표의 주선율과 대선율을 계이름으로 연습하여

합창하는 활동'과 '제재곡의 악곡 구성을 파악하고 A·B의 대조적 균형미를 살려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제재곡에 사용되는 우쿨렐레의 코드를 익혀보고 연주해 보는 활동', '제재곡의 반주에 사용되는 스트로크 주법을 익혀 보는 활동', '아메리카 민요의 특징을 이해하고, 개성 있게 불러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각 교육과정의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이전의 '당김음에 유의하여 노래를 불러보자' 활동에서 '당김음 리듬에 표시를 하고 바르게 노래를 불러보기' 활동으로 다양하게 리듬 학습이 제시됨을 볼 수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악기로 코드를 익혀보고 연주법을 익혀보는 기악 학습 활동이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별 하와이 민요 '알로하오에'의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우쿨렐레의 코드를 익히고 연주해보는 기악 영역의 학습활동이 여러 번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표 IV-11>은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하와이 민요 '알로하오에' 학습활동 내용이다.

<표 IV-11>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알로하오에' 학습활동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4차	삼화서적 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가사에 리듬을 적어 당김음 리듬에 ○표 하고 바르게 노래 불러 보자. · 다음 가락을 게이름으로 불러 보자.
5차	시사영어사 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기의 추억>을 게이름으로 불러 보고, 제재곡과 비교하여 닮은 가락끼리 같은 색칠을 하여 보자.
6차	음악춘추사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음자리 보표의 주된 가락과 낮은 음자리 보표의 주선율과 대선율을 게이름으로 연습하여 합창을 해보자. · 제재곡의 악곡 구성을 파악하고, A·B의 대조적 균형미를 살려 불러 보자.
2015 개정	음악과 생활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에 사용되는 우쿨렐레의 코드를 익혀 보고 연주 해보자. · 제재곡의 반주에 사용되는 스트로크 주법을 익혀 보자.

으로 제시되었다. 악곡의 조성은 모두 'F Major'로 동일하며, 두 곡의 음악적 특징에 있어서 2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mf crescendo*'으로 셈여림이 제시되어 있어 악상을 표현하도록 하였으나 2007 개정 교과서에는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나) 학습활동 내용

멕시코 민요 '라 쿠카라차'는 2차, 3차, 4차, 5차, 7차, 2007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10회 수록되었다. 이 곡에 제시된 주요 학습활동은 '제재곡의 리듬을 익히고 가락을 게이름으로 불러 보는 활동', '제재곡을 여러 악기로 연습하고 합주 또는 중주를 해보는 활동', '민요의 특징을 이해하고 개성 있게 불러 보는 활동' 등이 있다. 수록된 각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 중에서 2차, 3차, 4차, 5차,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따로 학습활동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제재곡을 합창으로 부르고 2부 합창과 3부 합창 부분의 느낌을 비교 및 토의하기 활동', '제재곡을 여러 악기로 연습하고 합주 또는 중주하기 활동', '제재곡과 관련된 <카논>을 들어보고 형식의 특성을 발표하기 활동', '합주에 맞추어 합창을 하면서 악기와 목소리가 서로 조화가 되는지 말해보기 활동'이 제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에서는 '아메리카 민요의 특징을 이해하고, 개성 있게 불러 보는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별 멕시코 민요 '라 쿠카라차'의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가장 영역의 학습활동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2>는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라 쿠카라차' 학습활동 내용이다.

<표 IV-12>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라 쿠카라차’ 학습활동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7차	동진음악출판사 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의 리듬을 익히고, 가락을 게이름으로 보고 불러 보자. · 제재곡을 합창으로 부르고, 2부 합창 부분과 3부 합창 부분의 느낌을 비교 토의하여 보자. · 합주에 맞추어 합창을 하면서 악기와 목소리가 서로 조화가 되는지 말해보기 활동
2015 개정	박영사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메리카 민요의 특징을 이해하고, 개성있게 불러 보자.

라. 아프리카 대륙

1) 가나 민요 ‘체 체 쿨레’

가) 악곡의 제시 형태



<그림 IV-13> 2009 개정 교육과정
천재교육



<그림 IV-14> 2015 개정 교육과정
박영사②

<그림 IV-13>과 <그림 IV-14>를 살펴보면, 악곡의 제시 형태에 있어 두 곡 모두 동일하게 단선보로 제시되어 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교과

서에서는 악보에 코드가 표기되어 있어 제시된 코드를 보고 연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음악 학습에 도움을 준다. 박자는 두 곡 모두 4/4박자로 동일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따로 빠르기말 표기가 없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보통빠르기(Moderato)’로 부르도록 제시하고 있다. 연주 형태에 있어서 두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가 선창과 후창으로 동일하게 제시되었으며, 가사에 있어서 의성어로 제시되어 두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가사 제시 방법이 동일하다. 또한 악곡의 조성은 모두 ‘Bb Major’로 동일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음표에 악센트가 제시되어 음악적 특징을 살려 부르도록 한다.

나) 학습활동 내용

가나 민요 ‘체체쿨레’은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3회 수록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에서는 학습활동이 따로 없이 악보만 제시되었다. 2015 개정에서는 ‘체체쿨레’를 부르면서 신체 표현을 해보기, ‘아프리카의 다른 민요를 노래하면서 신체로 표현해 보기’, ‘아프리카의 여러 민요를 감상하고 그 특징을 이야기해 보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체체쿨레’ 노랫말을 동작으로 배우면서 신체표현을 해보는 학습활동은 학생들이 제재곡 관련된 민속놀이나 춤을 통해 각 나라가 가지는 문화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프리카의 다른 민요를 노래하면서 신체로 표현하는 활동’은 2015 음악과 공통 음악과 교육과정의 음악적 창의·융합 역량을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케냐 민요 ‘잠보’

가) 악곡의 제시 형태

잠보
조성 라장조

케냐 민요
역사지 미상

활기차게

D G A7 D

잠보- 잠보 그 대- 잠게시 나요- 그림잘 있죠- 여
Jam-bo- Jam-bo Bwa-na- Ha-ha-ni ga-ni- Ma-zu-ni sa-na- Wa

D Em A7 D

리분- 다환영 해요- 케냐 물론- 하쿠나마 타타-
li-bun- na ka-ri ha-swa- Ken-ya yoo- Ha-ku-na Ma-ta-ta-

D Em A7 D

잠보- 잠보 그 대- 잠게시 나요- 그림잘 있죠- 여
Jam-bo- Jam-bo Bwa-na- Ha-ha-ni ga-ni- Ma-zu-ni sa-na- Wa

D Em A7 D

리분- 다환영 해요- 케냐 물론- 하쿠나마 타타-
li-bun- na ka-ri ha-swa- Ken-ya yoo- Ha-ku-na Ma-ta-ta-

이 곡의 제목인 '잠보(Jambo)'는 '간성'이라는 뜻의 스와힐리 어이다. 케냐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지라니 합창단의 공연에 편성되면서 우리나라에 알려졌다.

<그림 IV-15> 2009 개정 교육과정
천재교육

잠보
(부분 2부 합창)

활기차게

잠보- 잠보 그 대- 잠게시 나요? 그림잘 있죠- 여
Jam-bo- Jam-bo Bwa-na- Ha-ha-ni ga-ni- Ma-zu-ni sa-na- Wa

리분- 다환영 해요- 케냐 물론- 하쿠나마 타타-
li-bun- na ka-ri ha-swa- Ken-ya yoo- Ha-ku-na Ma-ta-ta-

잠보- 잠보 그 대- 잠게시 나요? 그림잘 있죠- 여
Jam-bo- Jam-bo Bwa-na- Ha-ha-ni ga-ni- Ma-zu-ni sa-na- Wa

리분- 다환영 해요- 케냐 물론- 하쿠나마 타타-
li-bun- na ka-ri ha-swa- Ken-ya yoo- Ha-ku-na Ma-ta-ta-

<그림 IV-16> 2015 개정 교육과정
박영사②

<그림 IV-15>와 <그림 IV-16>을 살펴보면, 악곡의 연주 형태에 있어 두 곡 모두 단성부로 시작하여 악보의 9마디에서 2성부 합창으로 제시되어 두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 연주 형태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음악 요소를 살펴보면, 두 곡 모두 4/4박자로 악곡의 분위기에 있어 ‘활기차게’ 노래 부르도록 제시되어 있다. 조성을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D Major’로 제시되어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Eb Major’로 제시되어 두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 조성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악곡의 제시 형태에 있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악곡의 마디에 코드가 표기되어 있어 제시된 코드를 보고 연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음악 학습에 도움을 준다. 가사의 제시 방법을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따로 원어 가사와 한국어 발음 가사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원어 가사와 한국어 발음 가사가 표기되어 학생들이 제재곡을 원어로 부르면서 각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를 살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원곡의 국가 케냐와 관련된 ‘지라니 합창단의 공연 모습’ 그림과 설명을 첨부하여 학생들의 제재곡 이해를 돕고 있다.

나) 학습활동 내용

케냐 민요 ‘잠보’는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2회 수록되었다. 2009 개정 음악교과서에서는 ‘제재곡의 리듬을 살려 즐겁게 노래를 불러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2015 개정에서는 ‘아프리카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케냐 민요 ‘잠보’의 중심 학습활동은 ‘북의 음악’을 연상할 정도로 리듬 음악이 발달한 아프리카의 흥겨운 리듬을 살려 노래를 불러보는 가창 영역 활동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라. 오세아니아 대륙

1) 뉴질랜드 민요 ‘연가’

<그림 IV-17> 7차 교육과정
동진음악출판사 3학년

<그림 IV-18> 2015 개정 교육과정
박영사②

가) 악곡의 제시 형태

<그림 IV-17>과 <그림 IV-18>을 살펴보면, 악곡의 연주 형태에 있어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2부 합창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독립노래와 부분 2부 합창으로 제시되어 두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 연주 형태 차이가 있다. 음악 요소에 있어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빠르지 않게’로 제시되어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조금 느리게(Andantino)’로 제시되어 두 교육과정에서 다르게 제시되었다. 박자는 4/4박자이며, 조성은 ‘G Major’로 두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 모두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악곡의 제시 형태를 살펴보면 7

차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와 2015 개정 음악교과서에서 악곡에 도돌이표가 제시되어 있어 마디가 반복되는 진행은 동일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악곡의 마디에 코드가 표기되어 있어 제시된 코드를 보고 연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음악 학습을 돕는다. 가사 제시 방법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따로 가사에 원어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에서는 원어와 발음이 제시되어 있어 제재곡을 원어로 부르면서 각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학습활동 내용

뉴질랜드 민요 ‘연가’는 7차, 2007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6회 수록되었다.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는 ‘보고 부르기로 가락을 익혀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합창 및 지휘를 해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제재곡의 화음 진행과 마침꼴을 이해하고, 기타나 건반 악기로 반주를 하며 노래하는 활동’, ‘다음의 악곡을 2성부로 연습한 후 제재곡을 합창하는 활동’, ‘제재곡의 원곡을 찾아 감상하고 두 곡을 비교하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오세아니아의 다른 민요를 함께 불러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각 교육과정별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합창 및 지휘를 해보는 활동’ 과 ‘기타나 건반 악기로 반주를 하며 노래하는 활동’, ‘원곡을 찾아 감상하고 두 곡을 비교하는 활동’ 등 각 교육과정별로 가창, 기악, 감상에 따른 다양한 영역의 학습활동이 제시되었다.

2) 오스트레일리아 민요 ‘월칭 마틸다’

가) 악곡의 제시 형태

④ 월칭 마틸다 호주 민요

1. 옛 날 어 떤 유 럽 자 녁 가에 아 일 했네
2. 양 말 마 리 냇 가 에 돌 아 시 러 왔 는 데
3. 목 장 주 인 말 타고 달 러 내 러 오 고요

저 월 칭 마 - 나 부 밀 - 에 - 서
유 럽 자 - 달 러 가 서 잡 았 넌
뒤 따 라 손 경 들 이 하 나 물 - 섯

그는 차 가 끓 는 동 - 안 - 앞 아 노래 하 기를
그는 그 - 양 음 베 - 님 에 점 어 넣 고 노래
당 신 태 - 님 에 들 어 있 는 양 은 두 구 짓 이 나

유원 씩 어원 칭 마 뵈 다 워 드 미 Fine

원 칭 마 뵈 다 원 칭 마 뵈 다
유원 씩 어원 칭 마 뵈 다 D.S.

<그림 IV-19> 7차 교육과정
동진음악출판사 2학년

Allegretto 박순양 의사 | 호주 민요

유 카 리 무 성 환 시 냇 물 기슭 에 서 캄 프 의 물 가 에
Once a jol-ly swag-man camp'd...by a bil-li-bong. Un der the shade of a

물 러 서 서 목 소 리 맞 추 어 서 노래 하 는 이 노래
coo-li-buh tree. And he sang as he watch'd and wait-ed till his bil-ly bolled.

원 칭 마 뵈 다 - 부 름 이 에 원 칭 마 뵈 다
You'll come a waltz-ing Ma-ti-da with me. Waltz-ing Ma-ti-da.

원 칭 마 뵈 다 우 리 는 자 유 의 방 양 자 오 마 뵈 다 두 이 게 예
Waltz-ing Ma-ti-da. A come a waltz-ing Ma-ti-da with me. And he sang as he watch'd and

원 구 이 노래 하 자 원 칭 마 뵈 다 - 부 름 이 에
wait-ed till his bil-ly bolled. You'll come a waltz-ing Ma-ti-da with me.

<그림 IV-20>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생활②

<그림 IV-19>와 <그림 IV-20>을 살펴보면, 악곡의 연주 형태에 있어 두 곡은 모두 단성부로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빠르기말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2015 개정 음악교과서에서는 ‘조금 빠르게(Allegretto)’로 빠르기말이 제시되어 있다. 음악 요소를 살펴보면, 두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 모두 4/4박자로 표시하고 있으며, 조성은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는 ‘D Major’로 제시되어 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Eb Major’ 조성으로 제시되어 있어 두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악곡의 조성차이가 있다. 악보를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D.S가 제시되어 마디가 반복되면서 선율을 이루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악보에 코드가 표기되

어 있어 제시된 코드를 보고 연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음악 학습에 도움을 준다.

나) 학습활동 내용

오스트레일리아 민요 ‘월칭 마틸다’는 7차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3회 수록되었다.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학습활동이 따로 없이 감상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는 ‘원곡을 감상하고 그 느낌을 살려 노래 부르는’ 활동, ‘오세아니아의 여러 민요를 특징을 살려 불러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과정별 오스트레일리아 민요 ‘월칭 마틸다’의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가창 영역의 학습활동 위주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표 IV-13>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제시된 오스트레일리아 민요 ‘월칭 마틸다’의 학습활동 내용이다.

<표 IV-13>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월칭 마틸다’ 학습활동

교육과정	교과서	학습활동 내용
7차	동진문화사 2학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감상 목표 ① 여러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부른다. ② 여러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활동이 따로 없고 감상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2015 개정	박영사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세아니아의 여러 민요를 특징을 살려 불러 보자.
	음악과 생활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곡을 감상하고 그 느낌을 살려 노래 불러 보자.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다문화 악곡이 차지하는 비중과 대륙 및 국가별로 다문화 악곡의 분포를 분석하여 대륙 및 국가별 다문화 악곡의 수용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대륙별 최다 수록곡 두 곡을 중심으로 다문화 악곡의 주요 학습활동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다문화 악곡의 비중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2차 교육과정이 11.5%, 3차 교육과정이 11.8%, 4차 교육과정이 13.9%, 5차 교육과정이 12.6%, 6차 교육과정이 11.1%, 7차 교육과정이 11.6%, 2007개정 교육과정이 8.6%, 2009 개정 교육과정이 7.0%, 2015 개정 교육과정이 6.3%로 교육과정에 따른 다문화 악곡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교과의 장르별로 비중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악의 양적 확대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교과서에서 국악의 비중이 늘어나고, 대중음악의 비중 증가로 제2차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내에서 점차 다양한 영역이 다루어져 다문화 악곡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의 대륙 및 국가별 분포는 유럽이 총 210회로 60.3%의 비중으로 5개의 대륙 중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 순으로 아시아가 총 68회로 19.5%, 아메리카가 총 48회로 13.9%를 보이며, 오세아니아가 총 13회 3.7%, 아프리카가 총 9회로 2.6%로 가장 적게 제시되었다. 각 대륙에

서 가장 많이 제시된 국가는 유럽에서는 독일이 57회,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19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19회,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가 6회, 아프리카에서는 가나가 3회로 각 대륙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국가로 나타났다. 대륙 및 국가별 분포를 살펴볼 때, 아프리카 민요는 특정한 지역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여러 지역에 골고루 수록되어 있는 반면,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민요는 특정 지역에 제재곡이 편중되어 수록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대륙별 최다 수록곡 두 곡을 중심으로 학습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 대륙에서 중국 민요 ‘모리화’가 3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14회로 최다 수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민요 ‘양거춤 추세’가 5차, 6차,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4회로 최다 수록되었다. 유럽 대륙에서는 스페인 민요 ‘고향생각’이 2차, 3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13회로 최다 수록되었으며, 체코 민요 ‘푸른목장’은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12회로 최다 수록되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하와이 민요 ‘알로하오에’가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에 총 12회로 최다 수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멕시코 민요 ‘라 쿠카라차’가 2차, 3차, 4차, 5차, 7차, 2007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10회로 최다 수록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가나 민요 ‘체체쿨레’가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3회로 최다 수록되었으며, 다음으로 케냐 민요 ‘잠보’가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2회로 최다 수록되었다.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는 뉴질랜드 민요 ‘연가’가 7차, 2007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 총 6회로 최다 수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민

요 ‘월칭 마틸다’가 7차,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에 총 3회로 최다 수록되었다.

대륙별 최다 수록곡 두 곡에서 악곡의 제시형태와 학습활동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 따라 동일한 제재곡이지만 연주 형태나 빠르기 및 조성의 변화, 피아노 반주의 유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되어 수록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중국 민요 ‘모리화’의 경우 교육과정에 걸쳐 음악교과서에 총 14회 수록되었지만 3차, 5차, 6차, 7차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에는 학습활동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스페인 민요 ‘고향 생각’ 또한 교육과정에 걸쳐 음악교과서에 총 13회 수록되었지만 2차, 3차, 2007 개정 음악교과서에 학습활동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습활동이 제시되지 않거나, 감상의 요점이나 감상 목표 학습 및 일부 활동 위주로 제시되어 학습활동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제재곡의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각자료와 해당 악곡에 대한 배경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 설명과 시각자료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사 제시 방법에 있어서 원어 발음의 한글 가사와 원어 가사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제시된 악곡을 이해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교과서에서 원어 가사와 한글로 적은 원어 발음의 가사가 제시되어 학생들의 다문화 악곡 학습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다문화 악곡의 대륙별, 국가별로 비중 편차를 줄여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별로 다양하게 골고루 수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악곡의 학습활동에서 활동내용 자체가 전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 다문화 악곡의 개별적인 활동내용과 보다 다양한 학습활동 내

용의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음악을 통해 해당 제재곡의 배경이 되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사회·문화적 배경과 민족의 정서 및 음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지도 방법의 연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문화 악곡에 대한 이해를 도와 다문화 수업에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그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학습할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문화 악곡의 제재곡의 학습활동에 있어서 해당 악곡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활동방향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 음악 수업을 위해 학습 내용에 적절한 삽화, 원어 가사, 전통 놀이 등의 교육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학습 내용들이 교과서에 수록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제6차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제7차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곽덕주, 강대중, 박현정, 소경희, 이선영, 정동욱, 조영환(2016). 미래교육, **교사가 디자인하다**, 파주: 교육과학사.
- 권덕원(2000).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 교육”, **세계음악학회**, (2), 49-76.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8). **음악교육의 기초(제4판)**. 파주: 교육과학사.
- 김규리(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5-6학년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악곡 및 학습활동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식, 권민석, 김병규, 박명희, 박형진, 서봉언, 윤주국, 이현철, 최성보.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2판)**. 서울: 도서출판 신정.
- 김미숙, 이미연(2017). “다문화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교과서 아시아 음악 분석 연구”, **음악교육공학**, 32.
- 김미숙, 현경실, 민경훈, 장근주, 김영미, 조성기, 김지현, 조대현, 송주현, 박지현, 최윤경, 김지현(2016). **음악과 교재연구(제2판)**. 서울: (주)학지사.
- 김은경(2014).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악곡 분석: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비교.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교부 고시 제442호. **제4차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 문교부 고시 제87-7호. **제5차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 문교부령 제120호. **제2차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령.
- 문교부령 제325호. **제3차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령.

- 문교부령 제45호. **제1차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령.
- 민경훈(2009). “다문화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13(4), 339-357.
- 민경훈(2009). “다문화 교육으로서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예술교육연구**, 7(1), 93-111.
- 민경훈·김신영·김용희·방금주·승윤희·양종모·이연경·임미경·장기범·조순이·주대창·현경 실(2019). **음악교육학 총론(제3판)**. 서울: 학지사.
- 방금주,조효임(2005). “미국의 학교음악교육에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 **열린 교육연구**, 13(2), 21-45.
- 유진희(2009). **중등 음악 교육의 다문화적 요소 변천 과정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인실(2013).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학지사
- 장인실(2006). 미국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24(4), 27-53.
- 조원탁, 박순희, 서선희, 안효자, 송기범, 이형하, 한신애(2014).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실천**, 파주: 양서원
- 주대창, 권수미, 김기수, 김미숙, 김선미, 김신영, 김영미, 김용희, 김지현, 민경훈, 박영주, 박은실, 박정철, 박지현, 배수영, 양종모, 유은숙, 윤문정, 윤종영, 이가원, 이에스더, 임미경, 장근주, 조대현, 최은아, 최진호, 현경실, 홍인혜(2018). **음악교육연구의 동향과 과제**. 서울: 학지사.
- 주대창·조효임(2004).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적 접근(Ⅱ)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音樂論壇** 18(-), 43-72.
- 최유진(2005).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다문화주의 수용실태 비교연구: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함희주(2003). “초등교육에서 다문화적 음악교육 적용가능성 탐색”, **음악교육 연구**, 25(-), 255-276.

홍수민(2018).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 중, 고 음악 교과서 다문화 단원
내용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
BBSMSTR_000000000008&nttId=80756](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0756) 행정안전부. 2020.11

교과서

- 서수준(1968). **중학교 음악 1**. 서울: 일진출판사.
- 서수준(1968). **중학교 음악 2**. 서울: 일진출판사.
- 서수준(1968). **중학교 음악 3**. 서울: 일진출판사.
- 최영한, 권길상(1979). **중학교 음악 1**. 서울: 일한도서출판사.
- 최영한, 권길상(1979). **중학교 음악 2**. 서울: 일한도서출판사.
- 최영한, 권길상(1979). **중학교 음악 3**. 서울: 일한도서출판사.
- 서울교육대학 1종도서(음악) 연구개발위원회(1979). **중학교 음악 1**. 서울: 국
정교과서 주식회사.
- 서울교육대학 1종도서(음악) 연구개발위원회(1979). **중학교 음악 2**. 서울: 국
정교과서 주식회사.
- 서울교육대학 1종도서(음악) 연구개발위원회(1979). **중학교 음악 3**. 서울: 국
정교과서 주식회사.
- 이상덕(1984). **중학교 음악 1**. 서울: 삼화서적주식회사.
- 이상덕(1984). **중학교 음악 2**. 서울: 삼화서적주식회사.
- 이상덕(1984). **중학교 음악 3**. 서울: 삼화서적주식회사.
- 오동일(1984). **중학교 음악 1**. 서울: 학연사.
- 오동일(1984). **중학교 음악 2**. 서울: 학연사.
- 오동일(1984). **중학교 음악 3**. 서울: 학연사.
- 김용진, 강순기, 변훈(1989). **중학교 음악 1**. 서울: 시사영어사.
- 김용진, 강순기, 변훈(1990). **중학교 음악 2**. 서울: 시사영어사.
- 김용진, 강순기, 변훈(1991). **중학교 음악 3**. 서울: 시사영어사.
- 정영택, 허화병(1989). **중학교 음악 1**. 서울: (주) 지학사.
- 정영택, 허화병(1989). **중학교 음악 2**. 서울: (주) 지학사.
- 정영택, 허화병(1991). **중학교 음악 3**. 서울: (주) 지학사.

- 류덕희(1995). **중학교 음악 1**. 서울: 도서출판장원.
- 류덕희(1996). **중학교 음악 2**. 서울: 도서출판장원.
- 류덕희(1997). **중학교 음악3**. 서울: 도서출판장원.
- 양재무(1995). **중학교 음악 1**. 서울: 음악춘추사.
- 양재무(1996). **중학교 음악 2**. 서울: 음악춘추사.
- 양재무(1997). **중학교 음악 3**. 서울: 음악춘추사.
-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2001). **중학교 음악 1**. 서울: (주) 두산.
-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2003). **중학교 음악 2**. 서울: (주) 두산.
-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2003). **중학교 음악 3**. 서울: (주) 두산.
- 김준수, 이동훈(2002). **중학교 음악 1**. 서울: 동진음악출판사.
- 김준수, 이동훈(2003). **중학교 음악 2**. 서울: 동진음악출판사.
- 김준수, 이동훈(2003). **중학교 음악 3**. 서울: 동진음악출판사.
- 양종모, 우광혁, 신현남, 윤성원, 김한순, 독고현(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주)금성출판사.
- 양종모, 우광혁, 신현남, 윤성원, 김한순, 독고현(2011). **중학교 음악 2**. 서울: (주)금성출판사.
- 양종모, 우광혁, 신현남, 윤성원, 김한순, 독고현(2012). **중학교 음악 3**. 서울: (주)금성출판사.
- 장기범, 송무경, 임원수, 김유경, 김경태(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주)미래엔.
- 장기범, 송무경, 임원수, 김유경, 김경태(2011). **중학교 음악 2**. 서울: (주)미래엔.
- 장기범, 송무경, 임원수, 김유경, 김경태(2012). **중학교 음악 3**. 서울: (주)미래엔.
- 김용희, 김신영, 현경실, 현경채(2013). **중학교 음악**. 서울: (주)금성출판사.
- 민은기, 이경화, 안인경, 송선형(2013). **중학교 음악**. 서울: 천재교육
- 양종모, 신현남, 독고현, 김한순, 장보운, 황은주, 송미애, 양덕희(2017). **중학교 음악①**. 서울: (주)음악과생활.

양종모, 신현남, 독고현, 김한순, 장보운, 황은주, 송미애, 양덕희(2017). **중학교 음악②**. 서울: (주)음악과생활.

주광식, 최은아, 김영현(2018). **중학교 음악①**. 서울: (주)박영사.

주광식, 최은아, 김영현(2018). **중학교 음악②**. 서울: (주)박영사.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Multi-Cultural Music Pieces and Learning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the Curriculum

Kim, Eun song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multi-cultural music pieces and learning activities carried on the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the curriculum from the 2nd Amendment of National Curriculum to the current 2015 Amendment of National Curriculum, and thereby, suggest a pedagogic direction for the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For this purpose, 45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edi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curriculum from its second amendment to the current one were sampled, and thereby, the number of the pages carrying the multi-cultural music pieces were counted, while the learning activitie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the forms of the music pieces suggeste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atios of the multi-cultural music piec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the multi-cultural music pieces has decreased gradually over time: 11.5% in the 2nd amendment of the curriculum, 11.8% in the 3rd amendment, 13.9% in the 4th amendment, 12.6% in the 5th amendment, 11.1% in the 6th amendment, 11.6% in the 7th amendment, 8.6% in 2007 amendment, 7.0% in 2009 amendment, and 6.3% in the 2015 amendment. Namely, the ratio has gradually decreased since the 7th amendment.

Secon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atios of genres, it was found that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curriculum, the ratio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pieces had increased, while that of the popular music pieces had also increased. In short, for the period from the 2nd amendment to 2015 amendment, the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had featured diverse areas, decreasing the ratio of the multi-cultural music pieces.

Thirdly, in terms of the regions for the period from the 2nd to 2015 amendment of the National Curriculum to 2015 one, the European music pieces accounted for 60.3% (n=210) of the multi-cultural music pieces, the Asian ones for 19.5% (n=68), the American ones for 13.9% (n=48), the Oceanic ones for 3.7% (n=13) and the African ones accounted for 2.6% (n=9). In terms of the countries, German music pieces were 57, the Chinese ones 19, the US ones 19, the New Zealand and Australian ones 6, and Ghana ones were 3.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usic pieces were biased in certain regions. So, in the next amendment of the curriculum, the music pieces should be carried on the music textbooks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diversity.

The 2 music pieces per continent carried on the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for the period from 2nd to 2015 amendment of the curriculum were selected, and a total of 10 music pieces could be analyzed centering around the learning activ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y were the same music pieces selected according to the curriculum, they were diversified in terms of performance types, changes of tempo and harmonies, accompaniment of the piano, etc. In contrast, the learning activities were not suggested, or partially suggested centering around some parts. Hence, it is necessary to suggest diverse learning activities together with the individual ones.

Secondly, in some cases, the visual data useful to understanding of the regions of the multi-cultural music pieces were not presented. In order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music pieces, it is deemed necessary to present diverse description of their socio-cultural backgrounds with the visual data.

Thirdly, some music pieces did not feature the native lyrics together with the Korean ones pronouncing the native language. So, it was deemed not easy for the middle schoolers to understand the music pieces. Hence,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native lyrics and their Korean pronunciations to help students better understand the multi-cultural music pieces. Lastl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the future studies that would discuss the problems suggested by this study regarding the multi-cultural music pieces carried on the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